

# 먹고 마시고 즐기고... 'So Hot' 광주 동명동

## 롯데백, 문화전당 개관 기념 명품전

### 10개 브랜드 최대 50% 할인...맛집촌 조성도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롯데백화점광주점이 유명 명품전을 기획하고, 지역 음식을 선보인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 앞서 지난 7월부터 기존 1층에 위치한 화장품 매장을 해외 명품과 분리해 2층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프라다, 구찌, 불가리, 버버리, 페라가모, 미우미우, 테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몽블랑 등 지역 최대 규모의 해외명품관을 조성했다. 또 문화전당 정식 개관일에 맞춰 오는 27일부터 광주점 해외명품 10개 브랜드에서 최대 50% 할인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명품 시즌오프를 진행한다.

프라다와미우미우에서는 역대 최초로 자 최대 할인폭인 50% 시즌오프를 진행하며, 구찌 40~30%, 버버리 40~20%,

페라가모 30% 등 15년도 상품 할인과 더불어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및 무이자 할부 행사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 늘어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쇼핑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 언어별 통역이 가능한 직원을 배치했다. 또 외국인들의 쇼핑 및 세금환급, 편의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1:1 에스코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롯데백화점광주점은 또 광주의 맛을 알리기 위해 초밥의 달인으로 유명한 가메 일식, 생고기 비빔밥 원조 육과 한우촌, 담양 대동밥과 떡갈비로 알려진 덕인관 등이 자리한 지역 맛집촌도 조성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



## 트렉스타 '명품화' 중심에 서다

### '부산신발 세계적 명품화 홍보전' 참가 기술력 공개

한국의 아웃도어 브랜드 트렉스타(대표 권동철)가 오는 26일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계속되는 '부산신발 세계적 명품화 홍보전'에 참가한다.

트렉스타는 이번 홍보전에서 지난 2월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아웃도어 쇼 ISPO에서 황금상과 아시아제품대상 등 2관왕을 수상한 '헨즈프리' 신발을 전시하고 제품 체험행사도 진행한다.

또 미래관에 트렉스타의 '위치추적신발'과 '저주파신발' 등 신기술이 적용된

신발을 선보이며 트렉스타의 기술력을 소개한다.

24일에 열린 개막식에는 부산 국회의원 일 이진복 등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한편 '부산신발 세계적 명품화 홍보전'은 부산시와 이진복 국회의원(부산 동래)이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이색 카페·맛집·술집 즐비...광주 맛 지도 바꿔 독특한 건물·인테리어 볼거리...전 연령층에 인기 문화전당 개관 시너지 효과...업소간 협력 필요

25일 낮 12시, 광주시 동구 동명동의 D식당 앞에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식당으로 몰려든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길게 줄을 서기 시작했고, 식당 문을 열고 나온 종업원은 되레 "우리 집은 줄을 서서 먹을 만큼 맛있는 집이 아니다"며 손사래를 쳤다. 불경기에 손님이 와도 부족한 상황에 이 식당은 번호표를 나눠주지도 않았다. 하지만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순서를 정해 식당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인기였다. 낯은 집을 손봐 문을 연 이 식당은 젊은 요리사들이 매달 새로운 요리를 선보여 찾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광주시 동구 동명동 일대가 최근 뜨겁다. 수년 전 이색 카페들이 들어서더니 최근에는 다양한 맛집이 생겨나 더욱 많은 사람이 몰리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패션부지인 조선대학교 인근 푸른길공원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이르는 동명동 일대에 맛집이 성업하면서 '광주의 맛 지도'도 덩달아 변하고 있다.

동명동 일대에서 현재 성업 중인 식당은 출점이 30여 곳에 달하며 독특한 건물 외형과 인테리어로 볼거리를 더하고 있다. 일부 업소의 경우, 예술과 디자인을 강조해 건물 자체가 이미 명소가 된 곳도 많다.

또 대부분 젊은층이 운영하다 보니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소품으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음식의 종류와 찾는 연령층이 다양한 것도 이곳만의 특징이다.

프렌치레스토랑 R과 A 등은 이미 젊은층 사이에서 맛집으로 통하고 닭곰탕과 전복 사브사브집 등은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인근 도서관 이용객과 학원생

을 위한 분석집도 진화하고 있다. 깔끔한 인테리어를 갖추고 수제 햄버거와 외플, 돈가스외 어묵 등을 판매하거나 붕어빵을 전문적으로 내놓는 집도 생겨났다.

가까운 거리에서 식사와 차, 술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는 점도 동명동 일대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다.

외국 맥주만을 전문적으로 파는 실내 포장마차와 데킬라맥주에 통달한 먹는 술집 등 이색 술집들도 이 일대에 즐비하다. 또 기존에 자리잡은 카페에서도 가볍게 맥주와 와인을 즐길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더욱 늘고 있다.

동명동으로 사람이 몰리다 보니 아시아문화전당 효과를 기대했던 층으로 1가 일대 상가에서는 불멘소리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인근 동명동의 '빨대효과' 탓에 손님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층장르 1가의 O주점 업주는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동명동으로 손님이 많이 이동해 매출이 줄고 있다"면서 "과거 조선대 학생 등이 자연스럽게 옛 전남도청 인근으로 이동했는데 이제는 동명동에 머물며 구도심으로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하소연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에 따라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명동 일대로 몰려들 것으로 기대되면서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업소 간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동명동의 한 식당 업주는 "대인시장과 예술거리처럼 다양한 문화행사나 할인행사 등이 펼쳐지면 동명동이 서울의 가로수길에 버금가는 명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 특 쏘는 '부라더#소다' 톡톡 튀는 광고

### 배우 하연수 모델 발탁

보해양조주(대표이사 임지선)의 신제품 탄산수 '부라더#소다'가 이색 광고를 공개해 화제다.

부라더#소다는 18일, 티저 광고 공개를 시작으로 25일부터 본 광고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티저 광고부터 궁금증을 자아낸 부라더#소다는 본 광고 방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예정이다.

부라더#소다의 모델은 귀여운 이미지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 하연수를 발탁했다. 그는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개성 있게 풀어내며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최근에는 tvN 드라마 '콩트 앤 더 시티'에서 20대 여성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연기로 인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보해양조주는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순수하면서도 영롱한 매력을 지닌 배우 하연수가 부라더#소다와 만나 매력적인 조합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광고는 "나만의 술, 나는 소다"라



는 주제 아래 '부라더#소다'를 즐기는 상황을 감각적이고 독특한 영상미로 담았다. 하연수의 상큼 발랄한 표정, 배경과 소품, 분위기가 자아내는 요묘한 느낌을 극대화하여 기존 주류 제품과는 다른 '부라더#소다'만의 차별성을 표현했다. 보해양조주는 광고 공개와 함께 '부라더#소다'의 인스타그램 계정(@brother\_soda)을 개설, 소비자와의 공감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광주은행, 31사단에 위문금 500만원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은 25일 오후 연말을 앞두고 지역 향토부대인 보병 제31사단(사단장 권혁신)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5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은 25일 오후 연말을 앞두고 지역 향토부대인 보병 제31사단(사단장 권혁신)을 위문 방문해 장병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담아 500만원의 위문금을 전달했다. <광주은행 제공>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09.42 (-6.87)      금리 (국고채 3년) 1.77% (0.00)
- ▲ 코스닥 688.78 (+0.92)      ▼ 환율 (USD) 1143.40원 (-10.40)

# 『책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은 책을 만든다』

공지영, 조정래, 유시민, 정호승, 최재천, 김병종 등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 23인이 말하는  
책이 삶을 빛나게 하는 순간들!



/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이 털어놓은 책과의 인연! 자신만의 색깔로 책을 짓는 작가들과 문화예술가 23인의 내밀한 고백을 한데 모았다. 책은 작가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고, 또 그로 인해 그들은 어떤 작품을 쓰게 되었을까. 우리 시대 최고의 작가들을 한 명의 독자로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작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든 운명 같은 순간을 엿보게 될 것이다./

“저자의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깨달음이 시작되는 것이 독서다”

미다스북스 박성천 지음 | 320쪽 | 22,000원

